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성부 성자와 성령(찬/새4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이중교 장로 2부/미국선 장로 3부/김광식 집사 4부/이유진 집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은혜 위에 은혜(전지나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스바냐(Zeph.) 3:14-17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4:19-26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Sung Chul Hwang **황성철 목사**
당신 때문에 노래하시는 하나님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10)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찬404/새304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 Rev. Sung Chul Hwang **황성철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황성철 목사 / Rev. Sung Chul Hwang

은혜 아니면

If Not for Grace

신앙의 길을 오래 걸어온 이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대면한 이들이 발견한 유일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완벽했기 때문도, 믿음이 흔들림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실패와 후회, 넘어짐의 순간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테두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자격 없음'에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준비된 완벽한 사람보다, 결핍투성이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살인자였던 모세, 간음했던 다윗, 스승을 부인한 베드로, 박해자였던 바울까지, 그들 중 은혜라는 버팀목 없이 바로 설 수 있었던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먼저, 그리고 더 깊이 붙들고 계셨기에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고난의 부재'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고난을 제거하기보다 그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게 하는 힘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절망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철학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은혜를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확신입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고 예배는 메마른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신앙은 가슴 벅찬 기쁨이 되고 현신은 거절할 수 없는 특권이 됩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말씀을 대하며, 다시 회개할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이 모든 작고 당연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결국 이 말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그 고백의 토대 위에서 살아갑니다.

Those who have walked in faith for many years share a common confession. "If not for grace, I would never have come this far." This is not merely a humble expression, but a truth discovered through honest reflection on one's life. We are not standing here today because our choices were always right or our faith was always strong. The very fact that we remain in faith despite countless failures, regrets and falls is undeniable evidence of grace.

The essence of grace lies in our 'undeserving nature'. Throughout the history of Scripture, God worked not through perfect people, but through flawed ones. Moses, a murderer; David, an adulterer; Peter, who denied his teacher; Paul, once a persecutor—none of them could stand without grace. We are no different. We may think we are holding tightly to our faith, but in reality, it is God's strong hand that first—and more firmly—held onto us, making today possible.

We often misunderstand grace as a life without suffering. However, grace does not remove hardship, but gives us a new perspective on it. What once felt unbearable becomes, through grace, the very path that leads us closer to God. So those who know grace can rise again, even in the darkest moments. And they will confidently say, "If the Lord is with me, I can walk again."

When grace is forgotten, faith becomes a heavy burden and worship becomes a duty. But when grace is remembered, faith becomes overwhelmed joy and devotion an irresistible privilege. This ordinary day—breathing, hearing the Word, and being able to repent—is itself a miraculous act of grace.

If the panorama of our lives were summed up in one sentence, this confession would remain. "If not for grace." Even today, we stand on that confession.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황성철 목사

당신 때문에 노래하시는 하나님 스바냐 3:14-17

1. 내가 나를 볼 때, 그리고 나와 관계된 것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현재 나의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거나 방해가 되고 있나요?

2. 나의 신앙은 현재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약해진다고 생각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나눠주세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세 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3:17 후반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와 닿습니까?

4.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부단히 공격합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무서운 무기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탄이 사용하는 어떤 무기에 더 취약한 것 같습니다까?

5.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복음을 붙들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두 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지금 아직도 내 마음에 안드는 나 자신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까?

6. 엡2:10에서 '만드신 바'(포이에마)라는 말씀의 의미를 나의 말로 크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_____ 이다."

적용하기



신년 인사
목회자

따뜻한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공병주 전도사 (예삼채플)

인생의 나이 50세를 하늘의 뜻을 안다는 의미의 '지천명(知天命)'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26년, '지천명'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한번의 힘찬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품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의 미래인 예삼의 청년들 또한 올해 교회에 허락하신 'Come and See'라는 주제에 발맞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가길 기도합니다.



이형석 목사 (예삼채플)

QT를 통해서 주시는 매일의 말씀과, 베델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매주의 말씀, 그리고 일 년을 목표로 쌓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리더십 지저스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진리를 배워 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삼의 청년들에게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가설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는 2026년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분들의 중보 기도제목 속에 제가 담당하는 사역들이 기억되기를 겸손히 구하게 됩니다.



이란혜 전도사 (Beyond the Blue)

지난 시간 동안 Beyond the Blue 사역을 통해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울며, 웃으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다시 일으키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저희는 동무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 홀로 있지 않도록 사랑의 삼겹줄로 뭉쳐 서로를 일으켜 세워 줌으로 회복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티나 목사 (환우)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를 붙들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고 함께 공감하는 사역을 바라봅니다. 아픈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베델이 그 뜻을 향해 달음박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역 위에 '하나 됨'의 은혜가 임하여,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세워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2026년 한 해도 함께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김현일 목사 (협동목사/병원심방)

하나님이 주님의 몸 된 믿음의 공동체, 5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베델교회를 통해 하시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요 1:38, 39, 43)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구하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2026년에도 언제나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안에서 모든 성도님과 함께 모두의 온전한 영육 간의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 가도록 선행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황성철 목사 (협동목사/상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신 여러분의 인내와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상담실은 완벽한 사람이 찾는 곳이 아

니라, 자신의 아픔을 마주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삶의 무게나 남모름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나 찾아와 주십시오. 올해는 정답을 서둘러 제시하기보다, 여러분의 세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곁에서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 아닙니다. 새해에는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고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김형직 목사 (베델콰이어 지휘자)

2026년은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은 50년의 여정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Come & See 50'이라는 표어처럼, 지금까지 베델콰이어는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왔으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찬양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의 삶을 말씀과 은혜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악적 완성도를 넘어 더욱 깊은 영성과 하나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델콰이어로 섬기겠습니다. 지난 반세기의 감사를 이정표 삼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박주남 전도사 (미디어 방송실장)

2026년을 시작하며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와서 보라! Come and See 50'입니다. 베델교회 50주년을 맞아 특별히 미디어 사역에서 그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것은 대부분의 미디어 사역이 외부에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주제를 잘 헤아려 많은 성도님과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분에게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예배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미디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의 보는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사역 스케치
MOD, 미션의 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은 2026년, 1월 마지막 주와 2월 첫째 주에는 M.O.D. 사역 박람회 (Ministry Opportunity Day)와 미션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교회 앞 본당과 코트야드는 각 부스와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는 성도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1월 25일 주일에 열린 M.O.D. 사역 박람회는 '1·1·1·365: 한 사람이 한 사역씩! 주님을 향한 한마음으로 365일!'이라는 표어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베델교회의 각 사역 팀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소개하며 함께 동역할 성도님들을 초대했고, 성도님들은 박람회를 둘러보며 다양한 사역의 내용과 섬김의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심 있는 사역 부스를 방문한 성도님들은 각



팀장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은혜롭고 뜻깊은 교제의 시간과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사인업 하기도 했습니다.

2월 1일 주일에 열린 미션의 날은 'Go & See Mission 2026'을 주제로, 본당과 코트야드에 올해 계획된 단기선교팀들의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베델의 성도님들은 올해 3월부터 출발할 예정인 20여 개국의 선교지를 둘러보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에 시간과



헌신으로 동참하겠다는 결단으로 사인업을 하신 성도님들도 계셨고, 주일예배 중에는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비전, 기도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로 헌금으로 재능으로 1년 후 원 또는 직접 선교에 참여하기 위한 선

교 헌신 작성서에 서명하는 귀한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교회의 각 사역을 소개하는 M.O.D.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지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었던 미션의 날을 통해,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함께 세우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베델교회 50주년을 맞아, 교회의 성장과 앞으로의 선교 비전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던 더욱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베델뉴스팀

교회학교
아기학교

신앙의 씨앗을 심어요



Bethel Baby School has been one of the biggest blessings in my motherhood journey. Being a stay at home mom can be lonely and hard at times, but Baby School truly has been a gift from God for me and my son, Benjamin. Meeting and sharing life with other moms who are going through a similar season of life has brought me so much joy. I see how important it is for our children to learn about God and experience the blessings He

has given to them through new friends, teachers, their church, and most importantly the Word of God. All of this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the amazing Baby School staff who serve, teach, feed, and love on our babies each week. You can truly feel the love and joy that every teacher and JDSN has for God and His precious children. Thank you Bethel Baby School for the overwhelming amount of blessings you have given to our family. I pray that many more families can experience the same joy through Bethel Baby School!

이지은 사모

이번 아기학교를 수료한 믿음·소망 가정입니다. 먼저 아기학교 선생님들께, 그리고 이런 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아기학교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 하고 아이들이

게 물어보니, 망설임 없이 '선생님!'이라고 답하는 것을 보며 아이들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받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한 아이, 한 아이를 눈 맞추어 반겨 주시고, 다정하게 안아 주시며, 매 순간 진심으로 대해 주셔서 아이들은 아기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기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한 주 내내 작은 예배처럼 되었고, 천지창조부터 여러 성경 인물들을 아이들의 눈높이로 배워, 아이들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신앙의 씨앗이 심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아기학교는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안전한 배움의 시간이었고, 부모인 저희에게는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목격하게 해 준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기학교를 통해 더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이들의 삶 속에 믿음의 기초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혜원

훈련
양육반

신앙의 기초를 세우다



매일의 삶에 지쳐 어느새 나 중심의 삶이 더 자연스러워졌을 때, 저는 양육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반 교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일깨워 주었고, 제 삶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단계까지 이끌어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이끌어 주신 권사님의 사역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고, 나의 힘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주 만나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은 제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피곤해 쉬고 싶다가도 양육반에 다

녀오면 오히려 힘이 다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각 챕터를 통해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한정연 집사



작년 하반기 동안 양육반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 주신 은혜를 깊이 느꼈습니다. 매주 금요일 모임을 한 주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읽기와 암송, 성경 공부 나눔을 통해 말씀을 삶에 연결하는 법을 배웠고, 짧은 구절이 한 주의 생각과 태도를

붙잡아 주는 경험을 거듭했습니다.

함께한 교제 속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신앙이 쉼 안에서 자라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큐티가 일상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변함없이 헌신으로 인도해 주신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얻은 기초 위에 앞으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일정 속에서도 모임을 지키며 작은 순종이 쌓여 영적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매주 나눔을 준비하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믿음의 언어가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이 배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삶 속에서 계속 실천하겠습니다.

하헌정 집사

훈련
전도폭발

훈련의 은혜는 사실이었어요



제 주변의 수많은 전폭인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전폭 훈련에 참여할 것을 강권하며, 그동안 겪은 복음 제시의 현장과 받은 은혜를 나눠 주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전도폭발 훈련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훈련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 큰형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 아내의 모습과 수년간 끊임없이 권면해 주신 집사님 덕분에 가을학기 전폭훈련에 과감히 등록하였습니다.

매주 이어지는 훈련과 복음 제시를 준비하면서, 정면을 바라보던 저의 신앙의 자세와 인생의 시선은 5" 정도 변하게 되었고, 저는 그 작은 변화로 인해 성도에게는 최고의 은혜라 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폭인

들이 이야기했던 전도폭발 훈련의 은혜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암기력과 사회성 부족을 핑계로 전폭 훈련을 꾸준히 거부하고 계신가요? IQ 98에 내향형 ISTJ인 저도 무사히 1단계 훈련을 마쳤습니다. 희망의 봄을 맞아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하세요. 하나님이 그 여정의 끝까지 함께하실 겁니다.

안경수 집사



63차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귀한 체험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찾는 과정을 통해 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늘 곁에 있었지만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 과정을 통해 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복음 제시를 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친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훈련생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 제시 과정을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또 들으면서, 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굳건해졌습니다. 특히 매주 드리는 결신의 기도를 저 자신도 다시 고백하게 되면서, 믿음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 제시 대상자들의 간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이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장석희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운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찬송/Joy/훈련: 서동민 목사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삼채플: 이형석 목사
 예삼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파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경연
 예삼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콘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장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베델제자훈련 수료자

2025년 가을학기 베델제자훈련의 각 과정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축하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예수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되시기를 바랍니다.

■ 양육반(31명)

고강용, 김수아, 김영희, 김오순, 김제이미, 김주향, 김희영, 박선진, 박진숙, 박천석, 신상태, 심선우, 심재광, 유재희, 이진미, 이향진, 이혜숙, 임진영, 장진양, 장해인, 전정화, 전창식, 조성복, 진수연, 최은경, 최재환, 최지수, 하수지, 하현정, 한병준, 한정연

■ 전도폭발(45명)

1단계: 김대웅, 김복경, 김종현, 도영란, 박영선, 박정원, 박준섭, 배주희, 안경수, 이경은, 이윤옥, 이은영, 이재준, 임지현, 장석희, 장현복, 정보미, 정승우, 주아름, 최소진, 홍아름
 2단계: 김민숙, 김응진, 김현진, 안정선, 장지윤, 지효정, 최정미
 3단계: 구윤모, 김경하, 박현진, 반주현, 변진, 이자인, 이크리스틴, 지지영, 차원재
 4단계: 권미경, 김명희, 김영현, 양정규, 엄대석, 유선령, 이지애
 5단계: 강안젤라

■ BAM(14명)

1단계: 김두기, 김성균, 김지광, 안지호, 이세한, 이수정, 전승윤, 정인주, 홍정희, 황의진
 2단계: 김두환, 윤수진, 이명선, 정광실

▶ 제자훈련 수료식 일시/장소: 2월 8일(3부 예배 시), 본당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2,3월)	2/15: ①부-임동익	②부-이선갑	③부-박성규	④부-김승진
	2/22: ①부-이창열	②부-조관희	③부-박준경	④부-양경인
	3/1: ①부-유형석	②부-장천경	③부-윤대호	④부-김문정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2,3월)	2/14: 천승현	2/21: 김영민	2/28: 김영현	3/7: 김총철
강단꽃(2,3월)	2/8: 윤성자, 이태형	2/15: 이경희	2/22: 노성애	3/1: 선상균, 왕예찬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장원호(족부과), 간호사-황미례 다음주 | 의사-박종구(치과), 간호사-이정하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영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1-3부 예배에 귀한 말씀 전해주시신 황성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오이코스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은혜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2월 10일(화)-13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 OICOS 예배 특송: 은혜목장 (배홍수 목사 담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2월 14일(토) 오전 6시, 본당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 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문의: 2월 11일(수) 저녁 7시 30분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셀 개강 안내** 다음 주 2월 15일(주일)부터 2026년 상반기 셀이 개강합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상반기 셀모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셀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본당 앞 셀사역 부스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제7기 베델기도학교** 체계적인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기 원하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교육 기간: 2월 둘째 주-5월 둘째 주 (총 14주) 접수 마감/등록비: 2월 8일(주일), 20불 (교재 포함) 교육 내용: 2월 12일(목) 개강모임, 조별 기도모임과 책 나눔(12주), 기도 세미나(2회) 등록비/방법: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폼 작성, 혹은 본당 앞 기도팀 부스에서 신청 문의: 이봉윤 집사 (714)788-1235, prayer.school@bkc.org

◆ **베델 MIT 봄 학기 모집** 오늘부터 본당 앞 부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62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3월 6일(금)-6월 5일(금) 매주 금요일 강좌: 노래교실, 동양화, 서양화, 손뜨개질, 손 피아노, 힐링 피트니스, 인지 뇌크리에이션, 향기로운 인격 만들기, 생활 한의학, 스트레칭 문의: 김재훈 장로 (714)390-4967

◆ **주차증 갱신 안내** 2025년 주차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6년 갱신 스티커를 2월 15일(주일)과 2월 22일(주일)까지 주차사무실에서 재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베델 BAM 모집** 봄학기 훈련 1-3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방법: 2월 1일(주일)-15일(주일), 본당 앞 부스나 QR 코드 훈련 일정: 2월 19일(목)-6월 4일(목)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총 13주 문의: 장지봉 집사 (949)899-7334



◆ **Beyond the Blue 가정 회복 영상세미나** 사별(가족 포함), 이혼(별거)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새 삶의 변화를 돕는 세미나입니다. 일시/장소: 3월 6일(금)-6월 5일(금) 13주간 저녁 7시, 조이채플(6시부터 식사) 등록: 코트야드 부스나 홈페이지 문의: 전정례 권사(714)240-3718, 이란혜 전도사(949)422-8828

◆ **초등부(4-5학년) PTA 모임** 새로 부임한 교역자 및 팀장 소개와 올 해 초등부 사역의 방향과 계획, 그리고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2월 8일(주일) 오후 12시 30분-1시 30분, 체육관

◆ **영아부 PTA 모임** 영아부 1년을 맞이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영아부를 위해 PTA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번 PTA 모임에서는 교역자/팀장/교사 소개, 동역의 방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나누는 시간에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2월 15일(주일) 9시, 11시 예배 후 영아부실 대상: 영아부 부모와 예비 영아부 부모

◆ **은퇴목사 조찬모임** 구정을 맞이하여 은퇴목사 조찬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월 21일(토) 오전 7시 30분 (헵시바 예배 후) 장소: 비전채플 문의: 이명환 집사 (949)702-7188

◆ **교인 총회** 2월 14일(토) 오전 7시 30분 토요일 오이코스 예배 후, 본당에서 교인 총회로 모입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입교) 등록 교인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故 이안순 권사님(이진서 집사의 모친, 이주현 집사의 시모)께서 1월 27일(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편집장: 김경자 권사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사진 기자: 박성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Sung Chul Hwang

The God Who Rejoices Over You With Singing

Zephaniah 3:14–17

1. Share anything about yourself that bothers you. Does this interfere with or hinder your current spiritual life?

2. Do you feel that your faith is currently growing? If you feel stagnant or even weaker, what do you think is causing it?

3. Yet God expresses His love for us in three ways (Ephesians 3:17b). How does this speak to you personally?

4. Satan constantly seeks to pull us away from God’s love. What are two powerful weapons he often uses? Which of these do you feel most vulnerable to?

5. What are two truths that help us hold fast to the gospel—that we are God’s beloved children—despite Satan’s attacks? Even knowing these truths, are there still things about yourself that bother you?

6. In Ephesians 2:10, reflect on the meaning of “poiēma” (what has been created). Declare it in your own words: “I am God’s created _____.”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